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2면	"혁신파크 성공, 기관-기업 역할 분담 관건"	1
江原日報	08면	"적정 개발 수요 산정 사업의 공공성 중요"	2
江原日報	08면	이원학 "특구·세제혜택 바탕 돼야 성공 가능" 강태원 "지역...	3
江原日報	08면	"성과 내는 것은 기업 ... 협업 고려해야"	3
江原日報	08면	"각종 국책사업 도전할 기반 마련 필요"	4
THE Lead	온라인	이한영 도의원 "기후 위기는 태백의 기회, 열대야 없는 날...	5
강원도민일보	14면	제1회 평창 봉평메밀음식축제	6
江原日報	10면	방문객 '3만8천명' 매출 '3억' 역대 최고 흥행	6
江原日報	13면	고성군가족센터 이전식	7
강원도민일보	18면	[의정칼럼]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7
江原日報	10면	토막소식	8
江原日報	01면	폭염 속 주말 동해안 100만 인파 몰렸다	9
江原日報	01면	본격 피서철 ... 짹 막힌 고속도로	10
江原日報	02면	폭염 속 주말 동해안 100만 인파 몰렸다	10
江原日報	05면	최문순 전 지사 13시간 검찰 조사 받아	11
강원도민일보	01면	의사·간호사 이어 약사까지... 강원 의료공동화 가속	12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경북 10개 시군 '남북9축 고속도 추진협' 오늘 창립	12
강원도민일보	01면	강릉 8일째 열대야, 오늘도 덥다	13
강원도민일보	05면	펄펄 끓는 찜통더위에 "낮엔 아이스링크, 밤엔 대관령으로"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경제지표 전국 대비 저조 개선을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춘천 캠페이지 계획 가시화할 때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대관령 산악관광, 대한민국의 자산 돼야 한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이번엔 장수 3.5 지진, 강원자치도형 대책 강구를	17

江原日報

2023 07 31 ()
02

“혁신파크 성공, 기관-기업 역할 분담 관건”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

2030년까지 남산면 광관리 일원 정밀의료복합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통한 공공성 확보·적정 수요산정 필요성 제기

춘천시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성 확보, 적정한 수요 산정, 기관과 개발 기업의 공고한 역할 분담이 밀바탕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승환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2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과거 지역 개발사업 사례와 기업혁신파크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상보 8면
류 본부장은 “기업혁신파크 조성 효과를 기존 산출 모델에만 비춰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자리 창출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명확한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 기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유리하

다”고 강조했다.

춘천시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정부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세부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조 발표 후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춘천시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이호상 다쏘시스템 대표가 디지털 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 토론은 안무업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태원 강원대 교수, 최중수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수석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무철 강원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이 지난 2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백창석 춘천부시장, 김영래 강원일보 상무이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장장을 비롯한 내빈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이날 포럼은 백창석 춘천부시장, 김영래 강원일보 상무이사, 허영(춘천갑)·노용호(비례)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장, 이무철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보건·김운기·유홍규·김영배·배숙경·박노일·윤민섭·

남숙희·지승민 춘천시의원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사를 한 육동한 시장은 “기업혁신파크를 경제, 생활, 문화, 교육이 이뤄지는 주거·정착형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2030년까지 남산면 광관리 일원 300만㎡ 부지에 정밀의료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31 ()
08

춘천 바이오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

춘천시와 강원일보사는 지난 2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바이오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공모에 앞서 춘천시의 도시 조성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지난 2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춘천 바이오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에서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춘천시 중심의 ‘산업 입지 마스터 플랜’ 수립 시급”

/ 기조 발표 /

“적정 개발 수요 산정
사업의 공공성 중요”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 ‘기업혁신파크 정책 동향과 추진과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공공성, 적절한 개발 수요 면적 산정, 사업의 조기 활성화다.

지역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논할 때 총 사업비를 투입 산출 모델에 넣어 유발 효과가 어떨다는 식의 결과 값을 주로 말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기업도시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강조돼야 하고 대규모 앵커기업을 포함하는 특징상 사업 정상화까지의 일자리 창출 구상이 포함돼야 한다.

적정한 개발 수요는 미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현실에 바탕을 둔 산업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의 기존 데이터, 바이오 인프라를 적절히 결합해야 하고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 활성화는 민간 기업의 외부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1기 기업도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겼던 부분도 작은 인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기존에 수립했던 투자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었다. 기업혁신파크 선정 시점까지는 지자체와 앵커기업, 지역 의회가 공고한 관계를 맺지만 선정 이후는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현상을 많이 봤다. 장기적이면서 공고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하고 기관은 이를 염두에 둔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

2023 07 31 ()
08

江原日報

/ 종합 토론 /

△안무업 한림대 교수(좌장)="미래 산업의 새로운 모습은 전통적인 산업 기반인 토지, 돈, 사람에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진다. 첨단 바이오 산업은 정책 수립과 주민 참여, 기관과 기업의 이익, 연구 혁신 인력 양성, 데이터 등의 분야가 추가될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은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업혁신파크만을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혁신파크가 하나의 단지 개념이라면 그 안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로 신산업 육성 콘텐츠를 받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세계 혜택 등이 바탕이 돼야 결국 기업혁신파크가 성공할 수 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도 중요하다.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 일변도였다면 지식 산업을 더하고 연구 개발을 첨가해 지역 인재가 일하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

△강태원 강원대 교수=정밀의료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궁극적 목표이고 정밀의료 중심 산업단지가 구현된다면 인력 유출 방지,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기업 협업 시너지 등의 기대 효과가 크다. 정밀의료 산업은

안무업
한림대 교수 좌장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태원
강원대 교수최종수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헬스센터 팀장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무철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비스 분야를 산업단지에 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밀의료 박데이터가 무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고 주도권을 지닌 기업에 추천에 있다. 기술적인 우위가 혁신파크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 단지 조성으로 세계 굴지 제약사를 유치했고 국가 인재들을 해외 유출 없이 붙잡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무철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바이오 산업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개척자에서 쫓아가기 바쁜 형국으로 뒤바뀌었다. 원주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조성, 강릉은 천연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는데 추천은 먹거리 산업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혁신파크가 추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리=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이원학 "특구·세계혜택 바탕 돼야 성공 가능"

강태원 "지역 정밀의료산업 역할 설정해야"

최종수 "데이터 사용 환경 조성 병행돼야"

김창혁 "지방 재정 고려, 국가산단이 해법"

이무철 "도-도의회 차원의 노력 이뤄져야"

세계 각국이 핵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추천이 할 수 있는 정밀의료 산업은 무엇인가 역할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밀의료 산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병원, 연구소, IT기업, 대학, 제약사 등이 모여 산업군을 형성하는 만큼 이 요소들을 고

려한 특정 분야로 사업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종수 삼성서울병원 디지털 혁신센터 수석팀장=기존에 보유한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화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 유치에 앞서 이런 인프라 구성이 기술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 라 본다. 플랫폼을 만들고 개선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이 같은 환경 조성이 병행 추진돼야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서

2023 07 31 ()
08

江原日報

“성과 내는 것은 기업 ... 협업 고려해야”

△이호상 다쏘코리아 대표 '디지털 정밀 의료 기업혁신파크'=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실험과 연구, 분석, 임상, 생산과 개발 등의 기능을 한 곳에 둘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국내외의 네트워크와 연결시킨다면 더 많은 기업이 클러스터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내 기업은 아직 글로벌 의료가 기업, 제약사들과는 많은 격차가 난다. 다쏘시스템은 위탁 연구 용역을 통해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호상
다쏘코리아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준 좋은 환경이 우선이지만 결국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은 기업이다. 많은 기업이 클러스터 안에서 협업하고 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는데 우수 글로벌 기업들

과 협업이 고려된다면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7 31 ()

08

“각종 국책사업 도전할 기반 마련 필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춘천시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클러스터 성공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20~30년을 운영해야 한다. 1998년 시범 도시로 지정 받은 바이오 산업은 클러스터가 형성돼 움직일 수 있느냐를 학자들이 직관적으로 보는 기간이 지났고 이제 IT와 융합 기회가 왔다. 정밀의료는 바이오 산업의 하나의 큰 틀이었는데 IT와 심지어 푸드테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영역을 갖게 됐다. 춘천의 정밀의료 산업을 분석하면 라이프로그·빅데이터, 유전체분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석, 진단기기, 푸드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기술 발굴, 기업 유치, 혁신 인재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각 국책 사업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춘천시는 각 산업이 어디에 입지할지에 대한 산업 입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정밀의료기와 ICT를 결합한 타깃 기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2023 07 28 ()

THE Leader

이한영 도의원 “기후 위기는 태백의 기회, 열
대야 없는 날씨 활용해야”

이형진 기자



이한영 강원도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태백 더리더)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태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대화 시대’ 기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태백의 전년 대비 인구 감소율은 3.2%로 인천 동구(-4.9%), 충북 영동군(-3.8%)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이에 이한영 의원은 “정부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명문화해 새로운 인구셈법을 정의했다”고 언급하며, 인구감소에 새로운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백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 관광객 수가 숙박객 22명, 당일객 31명이다. 인구 1명이 감소하는 경우 당일 관광객 31명을 유입하여 지역 소비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태백의 날씨가 큰 역할을 해왔다.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무더위, 열대야가 없는 태백의 기후가 사업 밑천이 될 수 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방문객을 최대한 늘려 그 효과가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야 한다”고 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해 태백이 가진 청정한 기후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14



제1회 평창 봉평메밀음식축제 제1회평창봉평메밀음식축제가 최근봉평전통시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심재국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대형 메밀묵비빔퍼포먼스를하고 있다.

2023 07 31 ()

10

江原日報

방문객 '3만8천명' 매출 '3억' 역대 최고 흥행

홍천찰옥수수축제 성료

【홍천】'제27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역대 최대 방문객과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홍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홍천찰옥수수축제는 지역 5개 농협과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옥수수를 선보였고 지역 생산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농산물과 먹거리 등이 마련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3일간 3만 8,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찰옥수수 매출액은 1억2,000만여원, 농특산물 7,000만원, 그 외 음식점과 먹거리 부스 등을 포함하면 총 3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성철(42·서울관악구)씨는 "아이가 홍천 찰옥수수를 좋아해서 매년 방문하는데 올해는 안내가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손수레로 차까지 실어주는 시스템이 매우 편리했다"고 말했다.

올해 축제 행사장 중앙무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

군·문화재단 3일간 개최 가요제·공연 이벤트 다채 기관·단체 참여도 이어져

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예총 홍천지부의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를 비롯해 풍물놀이, 재즈 밴드, 민요 및 무용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으며 옥수수 빨리 먹기, 옥수수 낚시 등 방문객들이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홍천군새마을지회의 향토음식점, 홍천양수건설소의 전기전자거 팔빙수 만들기 체험,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아이스팩 만들기 등 지역 기관·단체의 참여도 이어졌다. 특히 축제기간 내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에 무더위쉼터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배려했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축제 종료 후 장소와 프로그램 등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내년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제27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개막식이 지난 28일 홍천종합운동장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노윤환 홍천경찰서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7 31 ()

13



고성군가족센터 이전식 고성군가족센터 이전식이 지난 28일 고성군 가족센터 가족방에서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이순매 고성군의회 부의장, 이 지영 도의원, 전인호 미래복지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18



의정칼럼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어느 초등학교 소년들이 학교에다가 길에서 이름 모를 야생화를 발견하고는 담임 선생님께 꽃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선생님도 처음 보는 꽃이라 대답하지 못하고 내일 알려준다고 했더니 학생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선생님도 모르는 꽃이 있다며 식물학을 전공하는 아빠에게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식물학 박사인 아버지는 그 꽃의 이름을 알면서도 아빠도 모르니 내일 선생님께 자세히 알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학교에 온 소년들을 담임 선생님이 불러 그 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소년은 식물학을 전공하는 아빠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알려준 선생님이 역시 대단하다고 감탄했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하도록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 사회의 전통적 교육관

소년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해 그 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던 것이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백년을 위한 서로의 약속이다. 백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정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교육관

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교육 현장엔 어떠한가? 우리 교육 현장에는 지난 수십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 자식이 살아남아야 할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방해되거나 불이익이 될 거 같으면 선생님마저 적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교육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50여년 만에 글로벌 탑10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기반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한 발전과 공존이라면 이러한 가치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시달린 젊은 교

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기적의 마술을 보여준 교육의 뒷면에 얼마나 많은 현장의 희생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교육에 대한 기대와 노력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와 관계자들만의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열쇠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현장에서의 노력과 부담을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함께 나눠줘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 일선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며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지면을 빌려 다짐한다.

江原日報

2023 07 31 ()
10

● 토막소식 ●

◇홍천 두촌장터 바
자회 개장식이 지난 29
일 두촌면 장터에서 박
영록 홍천군의장, 홍성
기 도의원, 이상필 군이
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천】

江原日報

2023 07 31 ()
01

폭염 속 주말 동해안 100만 인파 몰렸다

올여름 최다 피서객 집계

해수욕장·축제장 모처럼 특수
서울~강릉 6시간 교통 대란도
영동 열대야... 온열질환도 속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강원지역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를 피해 몰려든 피서객들로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8일째 이어지며 밤잠을 설치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도내 전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동해안 최다 인파 몰려=강원자치도환경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29, 30일 이틀 동안 도내 85개 동해안 해수욕장에 100만6,328명의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다. 시·군별로는 고성이 49만7,0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 22만2,030명, 삼척 10만4,780명, 동해 6만8,441명, 양양 6만4,658명, 속초 4만9,409명 순이었다.

‘속초 썸머 축제’가 지난 28일부터 속초해수욕장에서 시작된 것을 비롯

해 ‘경포 썸머페스티벌’이 30일부터 경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등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에서 피서객들과 함께하는 축제도 펼쳐졌다. 이 밖에도 홍천 찰옥수수축제, 태백 선선페스티벌, 평창 더위사냥축제, 고성 함백산 야생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도내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홍천 오션월드, 속초 워터피아, 인제 내린천, 원주 용수골계곡, 동해 무릉계곡 등에도 물놀이를 하거나 낚시, 캠핑을 즐

기려는 행락객으로 북적였다.

주말인 30일에는 피서를 마친 귀경 차량이 몰리며 도내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교통 대란도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귀경길 정체가 시작돼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6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열대야·온열질환자 속출=지난 22일부터 동해안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밤까지 이어지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남향진 솔바람다리와 강문 솟대다리 등 열대야 피서지 명소로 몰렸다. 대학생 이영아(여·21·강릉시교1동)씨는 “1주일 넘게 밤마다 폭풍 찌는 듯한 무더위로 바닷가나 24시간 카페에서 자정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준겸·류호준·김오미기자

2면에 계속

2023 07 31 ()
01

江原日報



본격 피서철 ... 꽉 막힌 고속도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양양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 07 31 ()
02

폭염속 주말 동해안

100만 인파 몰렸다

-1면에서 계속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도내에서 모두 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31일 낮 최고 기온이 춘천 34도, 원주 33도, 강릉 35도까지 오르는 등 도 전역에 다음 달 2일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져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겠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江原日報

2023 07 31 ()

05

최문순 전 지사 13시간 검찰 조사 받아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
최 “개입 없었다” 전면 부인

속보=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본보 지난 17일자 5면 보도)이 지난 28일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입찰 방해 혐의로 최 전 지사를 불러 밤 11시께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지사를 상대로 알펜시아 입찰 전 KH 측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위낙 부채가 심하고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 매각하기 위해 120개 정도 기업과 접촉했다”며 “3,0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다. 7,

115억원에 팔아서 그 부분은 검찰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라며 험잡 매각 의혹도 부인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KH 측에 전을 보내 4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 금액을 알려줬다는 매각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체류 중인 가운데 검찰이 최 전 지사를 먼저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피의자 신분이 된 최문순 전 도지사는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는 논평을 내고 최 전 지사를 비판했다. 도당은 “강원 역사상 최초로 도백을 역임한 사람이 재임 중에 자행한 일로 인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죄목만 보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특혜 매각을 위한 꼼수 목적만 숨어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이번 기회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익 집단의 카르텔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림·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01

의사·간호사 이어 약사까지...강원 의료공동화 가속

무너지는 강원도 공공의료

① 도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출퇴사

강원대병원 약무직 잇단 퇴사

17명 정원 중 절반 인력 운영

원주의료원도 약사 채용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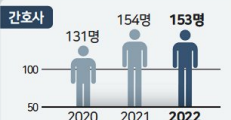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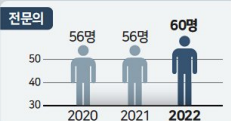
개원 약사 수준 보수 불가능

공공병원 정부지원 지원 필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퇴사에 이어 약 처방 및 제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사 등 약무직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강원도 공공의료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강원대병원의 경우 4명의 약사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강원대병원의 경우 17명 약무직 정원 중 이미 5명이 미달된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추가로 4명의 약사가 퇴사하면서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처방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대병원 측은 지난 25일부터 약무직 5명에 대한 수시채용 공고를 올렸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퇴사 의료진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처방 업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 약사의 경우 지난 2021년에도 정원 17명 중 13명 근무, 2022년에는 정원 17명 중 15명이 근무하는 등 매년 정원보다 미달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의료기관의 약무직 부족 현상을 단순히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약사 2명의 대만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난 19일에서야 겨우 1명이 총원됐다.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기존 채용 공고의 경우 홍보가 부족해 지원자가

많이 적었다"며 "내달 다시 채용공고를 올려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무직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을 개원하는 것만큼의 보수를 맞춰 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잇따른 퇴사도 문제다 영서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총 610명이 퇴사했다. 전문의의 경우 2020년 56명, 2021년 56명, 2022년 60명 퇴사했고, 정규직 간호사는 2020년 131명, 2021년 154명, 2022년 153명이 병원을 떠났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간호사 74명과 전문의 13명이 퇴사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문의만 모두 51명이 이탈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이직 및 사직의 문제는 기관 자체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병원에 약사가 없으면 안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 지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02

강원·경북 10개 시군 '남북9축 고속도 추진협' 오늘 창립

정선서 총회 임원 구성 등 논의

3차 정부 건설계획 반영 총력

양 지역 공동발전 기폭제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내륙지역 10개 지자체의 역점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내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31일 정선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에 나선다.

고속도로 통과 지자체는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경북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10개 시·군이다. 양구군을 기점으로

영천시까지 309.5km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조 88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초대 회장과 차기회장이 될 부회장 선출,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협의, 공동대응 업무 협약 등이 진행된다. 회장단 임기는 1년이다.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국가지도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포함됐으며,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원정책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9축 고속도로 구간 중 영월~양구 구간(136km)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용역비 3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발주,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구간 사업비는 6조 5000억 원이 소요된다.

도내 6개 내륙 시·군의 단체장들은 강원내륙에 고속도로가 구축되고 경북

봉화~영천 구간까지 연결되면 낙후된 접경지와 폐광지역 등 낙후된 중부내륙권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경북 상생·공동발전의 기폭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주현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01

강릉 8일째 열대야, 오늘도 덥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오늘 최고 34도까지 예보

강릉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난 22일 밤부터 8일째 지속되는 등 강원도내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강릉 27도, 삼척 25.4도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낮 최고기온이 37.3도를 기록하기도 한 강릉은 지난 22일 밤부터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지역 소나기가 예고됐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도내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8월 1일까지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1일 도내 낮 최고기온은 영

서 33~34도, 영동 30~34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2~24도, 영동 24~27도로, 영동 일부 지역의 경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홍성배 ▶ 관련 기사 5면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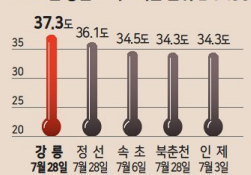
펄펄 끓는 찜통더위에 “낮엔 아이스링크, 밤엔 대관령으로”

28일 강릉 낮 최고기온 37.3도
주말 새 도내 온열질환자 8명
85곳 해수욕장 올해 최대 인파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데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이 속출, 강원도민이 ‘가마솥 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강원도내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29일 올 여름 일일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강릉은 지난 22일부터 8일째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면서 강릉시민들은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 시민들은 낮에는 아이스링크장,

2023년 강원도 최고기온 순위 출처: 기상청



밤에는 대관령 고지대와 같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을 찾아 ‘메뚜기’ 생활을 하고 있다.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라며 입을 모았다.

강릉은 지난 28일 낮 최고 기온이 37.3도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낮 최고

기온까지 기록했다. 이에 여름철 하루 평균 입장객이 약 20명에 그치던 빙산장은 최근 100여명까지 달했다. 최호영(37·여·강릉시 회산동)씨는 “무더위가 너무 심해 아이들과 아이스링크장을 찾았다”며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하루 일과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단위 피서객들은 숲속 나무그늘이 있는 소금강과 단경골 등 계곡을 찾는가 하면 밤에는 왕산 안반데기와 대관령 등 산악대기를 찾아 무더위를 피해 잠을 청하고 있다.

주말동안 강원도내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올 여름 강원도내 최고기온을 기록한 강릉에서만 주말사 이 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29일 3명(강릉·동해·평창 각 1명), 28일 5명(강릉 4명·양구 1명) 등 주말동안 강원도내 온열질환자는 8명이 늘어 48명까지 증가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주말, 도내 해수욕장은 피서를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가득찼다. 찜통더위 속 시민들은 강원도의 바다와 계곡을 찾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내 해수욕장 85곳의 일일 방문객은 총 49만 5444명으로 올 여름 기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고성이 24만 95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이 10만 9960명, 삼척 5만 265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은 개장 이후 이날까지 198만 6969명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기간 187만 1692명보다 6.2%

(11만 5277명) 증가했다.

하지만 뜨거운 피악별 아래서 쉽사리 물에 빠지기도 어렵다. 경포동 해변에는 불볕 더위 속 바다로 뛰어들기보다는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기다 오후 3~5시쯤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관광객 김 모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경포해수욕장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 바다보다 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며 “기온이 너무 올라가니 체력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배·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 19

경제지표 전국 대비 저조 개선을

-8월 기업업황전망 부정적, 경기회복력높이도록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1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발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6월 101.7에 이어 7월 102.7로 올랐습니다.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라서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지수가 낮고 전월 대비 상승폭 역시 전국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월 중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5p 상승한 것에 비해 강원지역은 1.0p로 절반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강원지역 경제회복력 속도가 그만큼 더딘 것으로 확인되기 에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지역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국 추이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데 비해 강원도내는 가계수입과 소비지출 전망 둘 다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기업의 7월 업황과 8월 업황 전망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건설업 같은 비제조업계의 7월 중 업황 BSI는 전국 평균 76인데 비해 강원지역은 65로 11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계의 7월 중 업

황 BSI는 전월 대비 2p 떨어졌으며, 8월 업황전망 BSI는 더 떨어져 4p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8월 전망은 7월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은 8월에 있을 유류세 연장 여부와 대출금리 반등세 등에 맞물려 부담이 우려됩니다. 2021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고 그기한이 8월로 다가오는데 종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대출금리 역시 반등세를 보입니다. 어제(7월 30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자리론 일반형 상품금리가 8월 11일부터 0.25%p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는 추가 조치도 예상됩니다.

대개 강원경제는 여름, 가을철엔 업황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딘 경제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에서는 맞춤형 시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8월 중 매출, 생산, 신규수주 모두 부정적으로 쏠리는 제조업계의 어려움과 자금 부족 및 내수 부진 애로가 더 커졌다고 호소하는 비제조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31 ()
/ 19

춘천 캠프페이지 계획 가시화할 때

-공원화등 청사진 명확히 밝혀 공감대 형성해야

춘천 캠프페이지가 오염 토양 반출과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는 2025년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아옵니다. 6·25전쟁 이후 70여년 만에 제 자리를 찾아 의미가 큼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개발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캠프페이지를 지켜본 시민들의 심경은 착잡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성 계획이 변경됐고, 방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결국 지난 2005년 춘천 미군 철수 이후 부지는 20년 가까이 공터로 남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부지 조성 계획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는 6·25전쟁과 정전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1951년 미군은 춘천 근화동 일대에 미군 군수품을 공급하는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958년 이곳에 병력을 집중한 뒤 춘천 캠프페이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반세기를 주둔한 미군은 2005년 철수했으며, 춘천시는 2016년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토양 정화 작업과, 잦은 계획 변경은 부지 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15만 600여㎡에 대해 1차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2차 반출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간의 부지 활용 방안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수립돼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민선 6기 때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모델로 한 시민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도청 신축 부지로 결정됐지만, 김진태 도청 출범 이후 도청을 동내면 고은리로 이전 신축하기로 하면서 캠프페이지 이전은 무산됐습니다.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은 캠프페이지와 역세권 일대에 R&D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특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여 IT 기업과 연구 기관의 입주를 조기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를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려 한다면, 공원의 디자인과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계획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는 형국입니다. 조만간 캠프페이지 조성과 관련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31 ()

/ 19

대관령 산악관광, 대한민국의 자산 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하면 한국의 융프라우를 만드는 대관령 산악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삼양목장에 2.4km 연장의 곤돌라, 산장호텔 10개동, 산악빌라 66동, 글램핑장을, 하늘목장에는 3.5km 길이의 산악열차와 산장호텔 1동,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부가가치 유발 6,015억원, 일자리 창출 6,671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대관령 산악관광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

년 확정된 정부의 규제 특례 전략산업에 대관령 산악관광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 제정 당시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대관령 산악관광만 제외됐다. 도는 대관령 일대가 산지가 아닌 사실상 초지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과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산림환경국, 평창군 등은 지난 20일 평창군 대관령면 삼양목장을 포함한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 예정지를 점검해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지구 내 궤도 및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특례가 일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

전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했었다. 표고 50% 이상,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지역의 개발 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민간의 궤도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물론 과제도 있다.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추가 특례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 법규와 강원특별법 특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산악관광특례를 추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관령 산악관광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해

양관광 테마와 연계하기
에 용이해 스위스의 융
프라우보다 더 풍성하고
매력적인 관광 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다. 한국
관광공사가 원주혁신도
시에 입주해 있어 국내

강원특별법 활용한 ‘한국형 융프라우’ 기대

국무조정실 현장 실사 등으로 도민 관심 고조

정부 균형발전 의지 이끌어 낼 지역 역량 중요

외 네트워크 활용도 유리하다. 강원도가 가진 산악관광 자원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위스 체르마트는 산 정상에 리조트 시설을 두고 케이블카,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호주 케언즈에 있는 스카이라일은 열대우림 보전에 공을 들여 유럽녹색문화상을 수상했다. 환경과 어울리는 숙박시설과 산악교통시설이 있는 백두대간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이제는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다. 정부가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자체뿐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 07 31 ()

/ 19

이번엔 장수 3.5 지진, 강원자치도형 대책 강구를

전북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6km, 진앙도 장수군 북쪽 18km에서 북쪽 17km로 재분석됐다. 애초 지진과 중속도가 빠른 P와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진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건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자치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동해상에서 일어난 57차례의 지진은 그 진앙지 기준으로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39회)과 남남동쪽 4km 지역(18회)에서 주로 발생했다. 도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지진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46건, 2022년 49건이다. 2023년 들어서는 이미 기존의 연간 횟수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 중 절반 가까이 강원도에서 일어났다.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

한다면 그로 인한 지진해일(Tsunami·쓰나미)의 피해는 한반도 동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기상청이 2012년 발간한 ‘한반도의 역사지진 기록’에 1643년과 1681년 동해에서 대규모 해일을 동반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기록(조선왕조실록)으로 남아 있다. ‘강원자치도형 지진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현재 정부와 강원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진 안전평가와 내진보강지원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1년부터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이 지진안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의 90%를 지원 중이지만 지난 2년간 평가에 참여한 곳은 미미하다. 전체 사업비(2억5,000만원)의 90%를 지원하는 내진보강지원사업의 신청은 올 5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의 지진 대응 강화도 중요하다. 농산촌의 펜션, 도심의 찜질방, PC방, 아파트, 교회 등 다수의 인원이 집중되는 시설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도내에는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돼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해약자에 대한 지진 대응력도 키워 나가야 한다.